

## 아이티 난민 선교 보고

### 1. 난민 상황

무정부 상태 - 외국인은 무조건 잡아서 돈거래

도미니카에 150 만명의 난민

불체자 추방 - 군인들이 새벽에 들이닥침 - 당일 추방해야 숙식비 절약

(엄마 아빠가 추방 당하면 현지 목사님이 아기들을 입양해서 키움)

군인들이 주요한 길목에서 아이티인들을 검문 - 돈을 주면 통과

주거 환경 열악 - 개천으로 생활 하수를 버리고, 그 개천에서 수영도 하고, 물을 길어 가기도 함

### 2. 희망찬 미래 : 신현재 선교사

난민 교회 96 개 교회 개척 , 현재 자립하여 난민들에 의해 잘 운영되고 있음

선교사님의 난민 사랑 - 그레올 성경을 난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책을 만들

(수천개의 질문으로 만든 책)

### 3. 사역 내용

8/22/-8/29/2023 (7박 8일), 실제 사역한 날 수는 5일 (주일과 가고 오는 날 빼면)

동역자 한분 - 오래전 아이티에 메디칼센터 개척한 경험. 오직 아이티 선교에 집중

두사람이 시작한 선교 - 시골 마을 순회 선교

차 렌트, 운전사, 통역, 리셉션니스트, 의사

하루에 16명만 진료 , 5일간 사역, 총 80명 진료

진단, 침술, 복음, 기도로 섬김

### 4. 진료

침술 치료가 한번으로 완치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간단한 한약을 복용시킴 -

소화제, 변비,근육통

환자를 환자로 대접 - 환자당 소요시간 30분씩,

모두 마사지 테이블에 누워서 치료 받게,

흰 테이블 카버를 씌움

환자들 - 중풍, 당뇨, 고혈압, 통증 (허리, 어깨, 눈, 가슴, 여성들 아랫배)

시골에서 메디칼 센터 운영 - 시골에서는 불체자인 환자들이 이동할 수 없으므로 인해 불필요함

### 5. 메디칼 센터 (도미니카 제2의 도시 산티아고 시내)

전영구 목사님과 만남 - 처제가 폐암으로 돌아가신 후 산티아고 시내에서 처제가 운영하던

선교센터를 인수해서 선교의 방향을 구상중에 있었음, 현지 시내에는 더 많은 아이티 난민이

살고 있어 메디칼 센터가 꼭 필요함

### 6. 기도제목

아이티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도미니카의 아이티 난민들을 위해

신현재 선교사님 부부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치료 받은 환자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그들을 통해 하나님나라가 확장되도록

산티아고 희망찬 미래 선교센터를 이용해 11/1-11/8 단기 선교 계획하고 있음 -

한의사 두명 그리고 5명의 동역자 (총 7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산티아고 시내에 있는 전영구 목사님의 선교센터가 메디칼 센터로 발전하도록